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 32주년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지 32주년(1982년11월16일)을 맞아 16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한 독도수호 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대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스마트기기 생태계 구축 속도전

삼성전자·소니의 스마트워치, 구글·애플 뛰어들어
아이리버·코오롱 옷에 첨단입힌 스마트웨어 출시

스마트제품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전자기기가 된 지 오래다.

공중전화나 집 전화 없이 어디서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 프리미엄 이어폰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으로 생활 환경이 편리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등 차세대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또 MS와 애플 등도 다양한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LG·애플 등 스마트워치 경쟁

스마트워치의 등장은 몇년 전부터 등장했다. 단지 당시 보급화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소니에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합류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차별화 포인트는 셀룰러 지원이다. 기존 제품이 스마트폰에 의존했다면 삼성전자가 올해 선보인 '기어S'는 3G 망을 이용해 음성통화가 가능하며 각종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스마트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LG전자는 디자인 차별화를 선언했다.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와 손잡고 G워치R에 원형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퀄컴 스냅드래곤 400 프로세서 등을 통해 성능도 강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MS의 전략은 대다수 모바일 기기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MS 윈도폰, 애플 iOS 등 모든 OS와 뛰어난 호환성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첫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는 내년 1분기 구정을 넘는 시점에서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애플은 기존 모바일 운영체제 iOS를 애플워치에 맞춰 최적화하는 한편, 우측의 다이얼을 디지털화했다. 입력방식은 누르는 방식과 터치를 모두 지원한다. 감압식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만 에이수스도 '젠워치'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하고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젠워치는 320x320 해상도를 지닌 1.63인치의 사각형 디스플레이를 가졌다. 제품의 메탈 테두리는 둥글게 마무리됐다. 머리로는 스냅드래곤400 프로세서를 장착했다.

◆IT기기 의류 콜라보, 스마트웨어

곡선에 첨단 기술을 입힌 스마트웨어가 우리 삶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 국내 MP3 산업을 호령하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아이리버가 의류업체와 손잡고 스마트웨어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최근 아이리버는 의류업체 파슨스,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스마트웨어 브랜드 '어발란자'를 선보였다. 지난해 심박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헤드셋 아이리버온을 내놓은데 이어 옷까지 만든 것이다. 의류업체와의 협업으로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어발란자는 겨울철 보온성에 집중했다. 코트나 패딩 안에 넣을 수 있는 두께 1.5㎜의 발열패드가 1분 안에 온도를 50도까지 끌어올린다. 컨트롤러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나 온도 등도 알 수 있고, 완전 충전할 경우 최대 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방전된 경우에는 USB를 통해 최대 2대까지도 충전할 수 있다.

스마트웨어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오롱스포츠는 지난 2006년부터 이같은 트렌드를 감지하고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올해 말 8번째 제품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발열 기능과 충전 기능 외에 블랙박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코오롱스포츠에 이어 아이리버까지 스마트웨어 시장에 합류하면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성은기자 vps@metroseoul.co.kr

---

390점 넘어야 서울시내 의대 간다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시내 대학의 의예과에 지원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기준으로 39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학원가의 분석이 나왔다.

영어와 수학 B형에서 만점자가 속출함에 따라 의예과의 예상 합격선이 작년과 비교해 5~8점 올라갔다.

16일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유웨이중앙교육, 종로학원, 진학사, 하늘교육 등이 서울시내 대학 11개교의 예상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내 대학의 의예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총점이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에 390점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예과의 입시업체 예상 합격선 평균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 의예 396점, 성균관대 의예 395점, 고려대 의과대 394점, 경희대 의예·중앙대 의학부·한양대 의예 393점, 이화여대 의예 392점 등 모두 390점 이상이었다.

특히 진학사는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 의예의 합격선을 만점인 400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의예과의 예상 합격선은 5~8점이나 올랐다. 한양대 의예과가 작년 평균 385점에서 8점이나 상승했고, 서울대 의예과도 5점 올랐다.

이른바 '물수능' 때문이다. 영어는 '올초 대입에서의 쉬운 수능 영어' 방침에 따라 쉽게 출제됐지만 수학 B형에서도 의외로 만점자가 전체 응시생의 4%대까지 나올 정도로 평이하게 나옴에 따라 의예과의 합격선이 오른 것이다. /송주원기자

인사 나누는 국회의장·야당대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함께하는 누리사이' 자전거 평화대장정 원정대 출정식 축하행사에서 정의화(오른쪽)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뉴시스

여야 '예산 전쟁' 본격화

예결위 조정소위 첫 회의… 증감액 심사 돌입
야 '박근혜표 예산' 손질… 큰 충돌 생길수도

초반 탐색전을 마친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벌였다.

휴일에 예산안 조정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달 말일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여야의 의지로 보인다.

올해부터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돼 여야 합의안을 만들 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경기 활성화 예산, 창조경제 예산 등의 항목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무상 보육 예산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 5조 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쪽지예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올해 여야는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쪽지 예산이 실제 사라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

예산안 조정소위와 함께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도 관심이 높다. 여야의 치열한 쟁점안인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를 다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정우기자 ... @metroseoul.co.kr

이번 주 국민안전처 수장 등 인사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 등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재난안전업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기용이 유력시된다.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이 각각 이관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차관급)은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맡도록 되어 있어 내부 출신이 승진,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경우 현재 해경조직 내에 치안정감 계급자가 없다는 점에서 육상경찰 출신 치안정감이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후보군은 윤익태 경찰청 차장, 구은수 서울청장, 최동해 경기청장, 이금형 부산청장, 황성찬 경찰대학장 등 5명이다. 경찰 안팎에선 윤 차장, 최 경기청장, 이 부산청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주성기자 ...

北, 南 패트리엇 도입 비난

북한은 16일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PAC)-3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비난하며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전쟁을 추구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남측에 PAC-3를 판매한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을 편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무기장사놀음은 우리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떠밀 뿐"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미국이 남측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합의한 것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남측에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주명기자

한-사우디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한국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오늘 출범

● 국내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주연합 당수회의 19일 서울서

● 전세계 보수민주정당의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가 40개국 11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행사인 21일 당수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와 민주화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 전대룰 논쟁 계파주의 빠지는 길"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6일 차기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권 대권 분리나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논란은 계파주의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제는 국민이야 바보야'란 제목의 글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이슈나 집권세력과의 대결에 몰두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통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뉴질랜드와 FTA 타결 … 쌀·꿀·고추·마늘 등 제외

공산품 수출 '탄력'…농축산업 '타격'

한국이 지난 15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내 공산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 축산물 낙농품 등은 뉴질랜드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제9차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낮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FTA 네트워크를 세계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또 GDP(국내총생산) 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

현재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했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연내 가서명을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한 후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FTA가 발효된다.

양국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다만 쌀, 천연꿀, 사과, 배 등 과실류와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품목 수는 199개다.

또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으며 뉴질랜드의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더욱이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고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 입국 쿼터와 연간 50명의 농축산업 훈련비자도 확보하는 등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조현정기자 ...

16일 오전 전남 담양군의 모 펜션 화재 현장에서 검찰 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요원들이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해당 펜션의 바비큐장에서 불이나 모 대학 동아리 학생과 졸업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이번엔 '펜션 안전불감증'

담양 화재로 10명 사상… 농어촌 민박 분류 '단속 미미'

올 들어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10월 성남 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펜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일 밤 전남 담양의 H펜션 바비큐장(33㎡)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동취사장(49.5㎡)까지 모두 태웠으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펜션은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정비법상 관광 편의를 위한 민박 개념으로, 건축법상으로는 디가구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연면적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위생점검만 받을 뿐 소방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5월 숙박업 허가를 받은 H펜션은 본관, 황토방 등 총 12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으며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바비큐장은 벽면에 조립식 패널과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억새로 덮는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해 운영하는 무허가 건물인 데도 수 년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며 소화기 등 안전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 따라 숙박시설은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는 안전보다는 위생에 치중됐다. 담양군은 해마다 2회 위생점검을 했지만 연면적 10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과 비슷하게 취급돼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단속은 미미해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펜션이 취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 화기를 다루는 곳도 많아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범종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입주민 열량계 조작 무혐의

배우 김부선(53·사진)씨의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16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자릿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고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9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들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 이 부착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점검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우영기자 hrw@

안전보건공단 LG화학 협력업체에 인증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이날 LG화학 대산공장 대회의실에서 LG화학의 5개 협력업체인 (주)가야엔지니어링, (주)에스씨티, 영화기업(주), 수향건설산업(주), 옥일전설(주)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14일 LG화학 대산공장 회의실에서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과 LG화학 대산공장 5개 협력업체 대표가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LG화학 대산공장은 14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청을 받고, 선정된 5개 회사에 대하여 인증 추진을 지원했다.

이준원 공단 전문기술총괄실장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모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주영기자 | sjy@

헉! 호랑이 외교 사절

metro HongKong

국경 넘어 '깜짝 방문'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호랑이 세 마리를 직접 방생했다. 이 중 푸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호랑이 '쿠즈야'가 최근 국경을 넘어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넘어와 뜻하지 않게 외교 사절이 됐다.

생후 23개월된 쿠즈야의 목에는 위치추적장치가 걸려있다. 하지만 중국 동북 지역은 삼림이 무성해 샤오싱안링(小興安嶺)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쿠즈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러시아 언론과 호랑이 보호기관은 중국 주민이 '대통령 호랑이'를 살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소식을 접한 러시아 네티즌들은 "쿠즈야, 곧 카펫트가 되겠지" "중국에서 약재로 쓰이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llegible]동물원의 야생동물전문가 장즈는 이와 관련, "이 호랑이가 사람에게 살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호랑이를 살해하면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러 우호 관계의 상징인 이 호랑이를 잘 [illegible] 했다.

/[illegible]

'누드 조깅' 잦아 화제

metro Brazil

브라질에서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서 최근 한 30세 여성이 벌거벗은 채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자연의 본 모습으로 뛰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후 또다른 이가 알몸으로 빗속을 활보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이 여성은 알몸 활보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했다.

최근 브라질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아들에 한번 꼴로 사람들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정리=정지선 인턴기자

"러, 우크라서 나가라"

G20서 서방 정상 한목소리… 반군 군사 지원 비난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왕따'가 됐다. 함께 참석한 서방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싸늘한 태도로 대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브리즈번에서 개막한 G20은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거론됐다.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악수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악수는 하겠지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가지요. 우크라이나에서 나가시오"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없으니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 쳤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갈림길에 서 있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세계를 향한 위협"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럭비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의 충돌을 일컫는 '셔츠 프런트'라는 표현을 쓰며 푸틴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한 반군이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등 분리주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강경 대응을 선포, 양측간 전면전 가능성이 높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통해 반군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 업무 만찬이 끝난 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이 13일 미얀마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호주 브리즈번에서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코알라를 안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혜성 탐사로봇 배터리 충전중

어두운 곳 착륙 … 수개월 이상 대기 모드

생명의 기원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혜성 탐사로봇 '필레'가 수개월 이상 대기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지역에 착륙해 배터리 충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우주국(ESA)은 협정세계시(UTC) 기준 0시36분(한국시간 오전9시36분)께 필레와 교신이 끊겨 대기모드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대기모드에서는 필레의 모든 측정기구와 시스템 대부분이 정지되며 태양광을 받아 충분히 충전되기 전까지는 교신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필레가 착륙한 지점이 혜성의 하루(자전주기) 12시간 중 1시간30분 정도만 햇볕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이 이뤄질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ESA는 그늘에 자리잡은 필레가 태양광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몸체를 35도 회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BBC는 "필레가 현재까지 보내온 데이터만으로도 애초 기대했던 1차 연구 목표의 80%가량을 성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lorinore@

美 '한 팔 농구 선수'

대학 경기 출전 화제

미국에서 한쪽 팔이 없는 농구 선수가 데뷔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플로리다대학 농구팀의 직 홋킨스(사진). 1학년생인 홋킨스는 플로리다대학이 윌리엄앤메리대학과 대결을 벌인 지난 14일 경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후반전에 2분 정도 출전, '한 팔 슈팅'을 선보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경기는 플로리다대학이 68대 45로 이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홋킨스는 한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취미로 농구를 하다 실력이 늘어 플로리다대학팀에 스카우트됐다.

/조선미기자

'로봇'… 영화 속 상상, 현실이 되다

기고

■ 정지윤 한화자산운용 매니저

로봇은 체코어로 '일하다'의 뜻을 가진 robota에서 유래되었다. 체코의 극작가 차페크가 쓴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Rossum's Universal Robots)'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90년간 인간을 능가하는 이 능력자들은 꾸준히 상상속에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로봇은 더 이상 상상속의 존재가 아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세계 경제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미래 사업으로 부상한 로봇 산업

로봇 기술은 현재 초기인 산업로봇의 단계를 거쳐 로봇청소기로 대표되는 자율로봇의 단계까지 진화했다. 이후 단계로 거론되는 지능형 로봇의 시대도 곧 상용화 될 전망이다. 로봇의 진화는 최근 들어 유난히 속도를 내고 있다. 소설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CEO들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연간 11% 이상 성장하며 2012년 기준 133억 달러로 추산되는 전 세계 로봇시장은 성장속도가 빨라지며 2020년 8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확보하려는 기업, 또는 인력을 대체해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려는 기업들, 따로는 무인자동차 같은 궁극의 편의를 먼저 시현하려는 혁신적인 기업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되고 있다.

정지윤 한화자산운용 equity사업본부 Equity리서치파트 매니저

시험 그기의 휴머노이드로봇 '키봇'이 연구진에게 꽃을 건네고 있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점유율 11%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산업로봇서 자율로봇의 단계로 진화 글로벌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

일본 통신업체 소프트뱅크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말하는 로봇 '페퍼'를 2015년 2월부터 시중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로봇은 키 1.2미터, 무게 28kg의 인간 형상이다. 인간과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면에서 특화됐다.

소프트뱅크는 페퍼의 OS 소스를 오픈해 안드로이드처럼 수많은 개발자가 참여 스스로 진화하는 생태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소프트뱅크가 과감하게 페퍼의 가격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로봇 Operating System" 사업을 위한 플랫폼의 확보차원이기 때문이다.

인텔도 지난 9월 열린 인텔 개발자 포럼에서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해 일반 고객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로봇 '지미'를 선보였다. 지미 로봇키트를 구성하는 프로세서, 모터 등 핵심부품은 모두 인텔 제품이다.

오픈소스와 쉬운 설계로 개인용 로봇 지미가 보급될 경우, 인텔에게 PC시장의 영광을 다시 안겨줄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생활 밀착형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인 셈이다.

아마존은 지난 2013년 12월 이미 무인비행기, 드론을 이용한 배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서비스가 현실화되기 앞서 지난 9월말 국제적인 물류배송업체인 독일의 DHL이 세계 최초로 무인기(드론) 배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파슬콥터'라는 이름의 드론을 통해 독일 북부의 작은 섬에 약품을 비롯한 긴급구호품 배달에 성공했다.

구글은 지난 1년간 무려 10여개의 로봇 관련업체를 인수했다. 구글의 로봇사업이 모두의 관심사가 된 것은 2013년 8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부터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해 치타, 치나 심지어 벌레 등 각종 동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본딴 로봇들은 어떤 지형,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사적, 산업적으로 응용 범위가 광범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로봇 사업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년)에 이어 지난 8월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14~2018년)을 발표했다.

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재난대응로봇과 로봇렌스바운 등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분야를 육성하고, 로봇과 타산업 간 융복합의 기회를 여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2012년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로봇시장은 2018년까지 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로봇기업 수는 402개에서 6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트렌드는 필연적으로 로봇을 원한다

로봇이 매력적인 미래사업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자원의 생산성 한계 봉착 ▲자원고갈을 대비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 증가 ▲기후변화로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자연재해 등 이 시대 메가트렌드에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로봇이 현실이 되며 인류가 큰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에서 우리는 하반신 마비환자인 한 청년의 기적과 같은 시축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전세계 축구팬에게 미던 감동을 선물한 것은 마법이 아니다. 과학이다. 그는 과학을 담지해 다리를 움직여주는 로봇 슈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을 찰 수 있었다. 영화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것이다.

"안전한 근무환경이 최고의 투자죠"

LG디스플레이 임원진 '무사고·무재해 일터 만들기' 솔선

LG디스플레이 최고경영진이 안전 작업장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사장 한상범)는 최근 CTO(최고기술책임자) 여상덕 사장과 CPO(최고생산책임자) 김종 전무 등 경영진 20여명이 파주 사업장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사고 무재해 일터 만들기'에 나선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한상범 사장과 CPO(최고생산책임자) 황용기 부사장은 지난 9월 안전체험관 개관행사에서 가장 먼저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한상범 사장은 당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최고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투자"라며 "안전문화는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정착되는 것으로, 모두가 산업안전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안전에는 임원, 직원 따로 없다.

또 최근 파주와 구미 사업장에서 담당과 계장 등 조직의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펼친 특강에서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들며, 리더들이 솔선수범해 안전관리 예방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사장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평소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기본을 준수하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비상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파주와 구미에 안전체험관을 열고 ▲유해물질▲절상(날카로운 도구에 다친 상처)▲추락▲협착(끼임)▲리튬폭발▲화재 등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 위험요소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예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안전체험관에서 전사 임직원은 물론 사내외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1945.14 (-15.37)	코스닥 541.93 (-5.77)
금리 2.27 (변동없음)	환율 1100.30 (+4.00)

LG전자 '아카' 출시 기념 이벤트 LG전자는 스마트폰 '아카' 출시를 기념해 지난 주말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자 전문 브랜드 햇츠온과 '아카'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전자 제공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기자

로또 복권 제626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7	13	26	27	35	1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733,779,45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37,755,867
3등	5개 숫자 일치	1,413,22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8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34·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안구 모양 담은 곡면TV 각광

인체 구조 반영한 기기, 사용자 친화적 기능으로 인기

IT기기들이 점점 인간과 닮아가고 있는 가운데 화면이 휘어져 있는 '커브드 TV'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최근 IT업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곡선이 주를 이루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인체 구조를 반영한 기기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커브드 UHD TV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4200R(반지름이 4200㎜인 원의 휜 정도) 곡률의 스크린을 구현한 TV로 휘어 있는 화면이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준다. 특히 안구 모양처럼 휘어 있는 화면은 재택에 눈의 피로를 낮춰준다. 화면과 눈의 거리가 측면과 중앙부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빠른 영상은 보더라도 눈동자가 초점 조절 없이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 반면 일반 평면TV의 경우 중앙부에서 측면으로 눈동자를 돌리게 되면 눈과 TV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초점을 다시 조절해 피사체를 인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눈의 피로가 가중되는데 커브드 TV는 '눈을 닮은' 디자인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해 눈의 피로를 낮추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커브드 UHD TV는 출시 5개월 만에 국내에서 누적 판매 1만대를 기록했다. 이후 세 달 만에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출시 초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에 한정됐으나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급형 커브드 UHD TV, 풀HD급 커브드 TV까지 확장됐다. 커브드 TV 모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보급형 UHD TV 55형 모델의 경우 단일 모델로 월 판매 300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LG전자도 올해 초 세계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OLED TV에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가변형 OLED TV'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다음해 1월 열리는 CES의 출품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가전협회(CEA)와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기술과 디자인을 평가해 선정하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전자 가변형 OLED TV /LG전자 제공

LG전자의 가변형 올레드 TV는 리모컨으로 화면곡률을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휘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곡률은 평면부터 화면 크기와 시청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대 곡률까지 조정 가능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곡률로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TV를 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정혜련기자 hjung6404@metroseoul.co.kr

"안전하게"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경진대회'에서 참가 어린이가 손동작하며 벽돌을 쌓고 있다. /뉴시스

현대건설, 4조9천억 정유공장 공사 계약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베네수엘라의 푸에르토 라 크루스에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총 48억3674만 달러(원화 4조 9000억원) 규모의 푸에르토 라 크루스 정유공장 확장·설비개선 공사의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중국의 위슨 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주한 이 공사는 현대건설 지분(약 72%) 34억6939만 달러(원화 3조 50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 약 18%, 위슨 10%이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계약한 공사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동쪽으로 약 250km에 위치한 정유공장의 시설과 설비를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7개월이다.

특히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2012년 베네수엘라에 처음 진출한 이후 세 번째로 계약한 공사다. 그간 현대건설이 진출이 적었던 정유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향후 타 지역에서 발주되는 정유공장 공사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중동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적극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대형 공사를 계약하게 됐다"며 "향후 현대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발주처와의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로 기존 시장과 신흥시장에서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imdt@

투자 매력 떨어지는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연 2%로 정체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돼 있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투자이민제 도입, 지주회사·서비스산업 진입 규제완화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1980~90년대에는 연평균 20~30%에 달했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2001년부터 꺾이기 시작해 이후 13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모두 공장설립형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 투자가 늘어나며 2001년부터는 M&A형 투자비중이 평균 31%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1980년대 연평균 39%, 1990년대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15%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총투자 규모는 2180억8000만 달러로 1990년대에 비해 6.9배 증가했다.

특히 2006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적은 '투자 역조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2013년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537억5000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2180억8000만 달러)의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박상훈기자 zen@

"수험생·학부모님께 영화티켓 드려요" NH농협은행은 17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고생한 수험생과 수험생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수험생 응원 선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에게 영화티켓(2매)을 증정한다. /농협은행 제공

'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자

세금우대 절세 상품 등 적극 활용해야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남짓 남았다.

특히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이 보너스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결과가 '보너스'가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직 늦지 않았다. 절세 상품들을 적극 활용해 재테크 전략을 짠다면, 13월의 보너스를 조금 더 챙길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꼽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기본적인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아 과표 구간이 높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저율(9.5%) 분리 과세 상품으로 20세 이상 성인은 1000만원, 60세 이상은 30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축계좌 안에서 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만기 때까지 절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절세'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겐 필수 아이템이다. 특히 올해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적기다.

총 급여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 역시 저축 납입액의 40%나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기존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2년 이상 불입시 연 3.3%가 제공된다"면서 "주택 청약 가능을 제외한 채 단순 예적금 상품으로만 봐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통장'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2%)를 해 주기로 했다. 기존 한도는 400만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92만4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김보라기자 mayo@

"은퇴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국민·우리·신한·농협… 세미나·귀농체험 지원 '눈길'

최근 은행들이 고객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 설계 세미나와 귀농 체험 등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은퇴금융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퇴 고객을 잡기 위한 복안이다. 실제로 국내 실버마켓 규모는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125조원으로 10년간 3.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4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부산, 대전, 서울지역에서 'KB골든라이프 행복노후설계' 전국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약 1000여명의 고객을 초청해 은퇴노후설계 특강, 부동산 특강, 명사특강(인문학·건강)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합리적 자산관리 와 고령화, 저성장의 경제환경 속에서 노후준비실태와 노후설계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후설계 방안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월 18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재테크 무료 세미나인 '제1회 우리지식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내가 만든 부자, 나를 만든 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우리지식나눔콘서트는 다년간 고객 투자 상담 등을 전담해 온 우리은행 부동산과 세무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지원에서 마련된 무료 세미나다.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법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슬기로운 재산 상속법, 돈 되는 세금상식 등을 들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부부은퇴 교실'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 걸쳐 열린 부부은퇴 교실은 은퇴에 관심이 많고,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지난 9월부터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단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직접 찾아가 은퇴자산관리 교육과 은퇴설계 상담을 진행하는 '미래설계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은퇴 후 귀농 생활 등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농협은행은 경기 여주시 주록마을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와 가족 80여명을 초청해 전원생활 체험여행 행사를 열었다. 이는 NH은퇴연구소가 제공하는 행복채움서비스의 일환으로 '食사랑 農사랑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오두희 퇴직연금부장은 "앞으로도 NH은퇴연구소를 통해 시니어 전문 은행으로서의 특화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은퇴설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연말로 예정된 맞춤형 은퇴컨설팅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향상된 은퇴설계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사랑의 김장나누기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왼쪽에서 두 번째), 자흥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김다운 우드뱅크 홍보대사(왼쪽에서 네 번째) 등이 이날 행사에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을 담그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해외직구 마일리지 적립에 딱!"

KB국민카드 '마일리지 가온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16일 해외직구 등 해외이용이 잦은 고객을 위한 'KB국민 마일리지 가온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실적조건과 적립한도에 제한 없이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통합형 항공 마일리지 적립형 상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건별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 대한항공은 1500원 당 1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학(원) 등록금, 지방세, 연회비 등은 제외된다.

또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면세점 이용시에는 더블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 해외가맹점과 면세점 이용 시에는 1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해 아시아나항공은 건별 이용금액 1000원당 2마일리지, 대한항공은 1500원당 2마일리지가 각각 적립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은 1만5000원, 국내외겸용은 2만원이다.

동영철 KB국민카드 상품기획부 담장은 "적립과 할인으로 나누는 가온과 누리의 상품 포트폴리오 중 적립에 있어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장했다"며 "특히 전월 실적조건과 적립한도를 없애고, 해외이용에 대해서는 더블 마일리지를 적립해줘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 팀장은 이어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크리스마스 세일 등 본격적인 미국 내 연말 세일시즌에 이 카드로 해외 온라인 가맹점 결제시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해외직구족은 더블 마일리지 적립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KB국민카드는 고객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상품을 통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국민카드는 마일리지 가온카드 출시를 기념해 배송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카드로 해외직구를 하고, 해외 배송대행 업체인 '판판아메리카'와 '아이포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해외 배송료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금감원 Q&A

"연휴 전날 보험금 지급합니다"

Q.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보험금을 공휴일 전날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현행 규정상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을 가능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 공휴일 전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체휴일제도 시행 등 연휴가 길면 휴일 시작 전에 보험회사에 지급신청을 하고 공휴일 전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

겨울철 빨래, 빨리 말리는 방법

전순이 주부 경제학

겨울철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빨래를 말리는 게 쉽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빨래도 바싹 마르지 않아서 주부들의 고민은 더 쌓인다. 이럴땐 몇 가지 팁을 이용한다면 빨래 건조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아기양말이나 턱받이 등 부피가 작은 빨래는 보온 밥통 위에 올려 놓으면 따뜻한 기운 덕분에 잘 마른다. 속옷이나 양말 등을 급하게 말려야 할 경우에는 빨래를 비닐 봉지에 넣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면 빨리 마른다. 단, 니트나 합성섬유는 피하는 게 좋다.

마른 수건도 젖은 빨래를 말리는 데 효과적이다. 스웨터나 기모 면처럼 두툼한 옷은 탈수 후에 마른 수건으로 꾹꾹 눌러주면 건조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물기가 남아 있는 점퍼류는 옷걸이에 수건을 걸친 뒤 옷을 걸면, 수건에 물기가 흡수돼 빨리 마르게 된다.

또 와이셔츠나 면 소재 의류는 덜 마른 상태에서 다림질을 해주면 더 빨리 말릴 수 있다. 특히 목과 소매 부분부터 다림질을 하면 잔주름 없이 금방 마르고 살균효과까지 볼 수 있다.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평소 다림질이 필요한 옷들은 덜 마른 상태에서 다림질을 하면 심한 구김이 아닌 이상 따로 스팀이나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된다.

주머니가 있는 바지나 스커트는 우선 뒤집어서 널었다가 빨래가 거의 말라갈 때 바깥쪽으로 완전히 뒤집는다. 약간의 수고로 빨래 건조 시간이 줄어든다. 특히 청바지는 뒤집어서 세탁하고 건조해야 깔끔하게 오래 입을 수 있다.

빨래 너는 순서를 바꿔도 건조 시간이 단축된다.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을 교대로 널면 공기 흐름이 좋아져 골고루 마른다.

커튼은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탈수해 바로 창가에 건다. 이렇게 하면 건조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림질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불이나 시트와 같이 부피가 큰 빨래는 접이식 건조대의 여러 줄을 사용해 파도형으로 교차시켜 널면 손쉽게 건조시킬 수 있다. 소금은 젖은 빨래가 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빨래가 쉽게 마르도록 도와준다.

/정민지기자 mj

악재 시달린 카지노주… 내년 살아날까

Issue&View
정부 정책 수혜 업종
/김현정기자 kjh@metroseoul.co.kr

계열사간 합병·영종도 복합리조트 건립…실적 개선 기대

올해 일본 관광객 급감과 세금 문제로 주가 상승이 주춤했던 카지노주가 내년 재도약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 들어 시행된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 사라지고 계열사 간 합병과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립 등 운영 효율화를 꾀하면서 내년 주가에 호재가 잇따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국내 상장한 대표적인 카지노 업계인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GKL의 주가는 최근 1년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4일 현재 3만4150원으로 지난해 말 3만950원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과 파라다이스의 주가 역시 지난해 말 주가 수준과 올해 흐름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카지노주들은 정부 정책 수혜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투자 매력이 두드러지는 업종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엔저로 인해 일본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든고 중국의 부패척결 정책으로 인해 마카오 카지노 업종의 침체가 국내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해 주가는 게걸음을 걸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관광객을 제외하곤 일본인 방문객 수가 크게 줄고 국내 이중국적자들의 송출이도 줄어들었다"며 "게다가 외국인 자금이 중국 정책 우려에 마카오 카지노주들을 일제히 매도하면서 국내 카지노주들 함께 팔아치우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정부 정책 수혜와 함께 실적 개선으로 카지노주가 성장스토리를 이어가리란 전망이 많다.

우선 GKL이 내년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파라다이스에 이어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조성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된다.

파라다이스는 오는 2017년, GKL은 2019년까지 영종도 카지노리조트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충격이 올해 모두 반영됐으므로 앞으로는 주가가 기저효과를 토대로 상승 국면에 들어설 환경이 다져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 연구원은 "예전에 없던 세금이 붙으면서 카지노 업체의 매출이 늘더라도 이익이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 없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 그룹 관계사 합병을 통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현재 비상장 계열사인 부산 카지노와 제주 롯데 카지노 가운데 1개를 파라다이스 상장사로 합병하면 매출액이 평균 2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단속을 강화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기존 마카오 카지노보다 한국 등 해외 관광에 눈을 돌리는 데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유가 하락 정유업계 실적개선 효자로

내년 원가 절감에 정제 마진도 상승 전망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감소로 적자에 허덕이던 정유업계가 내년 유가 급락 충격을 소화하고 오히려 저유가가 효자 노릇을 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정유 4사 중 에쓰오일은 정유부문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올해 3분기(1867억원)까지 6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SK에너지도 3분기에 2분기(2149억원)보다 적자폭이 커진 226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역시 3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정유업계 모두 부진에 허덕였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 이응주 애널리스트는 "2015년 산업별 전망 보고서"에서 정유 3사가 내년 2조 23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4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정제마진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동안 정유업계의 실적 악화 주범은 유가 하락이었다. 유가 하락이 가져오는 악몽은 재고손실과 정제마진 하락이다. 유가가 떨어지면 업체가 보유한 원유 재고의 평가가치가 하락해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2분기 배럴당 107.93 달러에서 3분기 96.64 달러로 내리자 SK에너지는 3분기 1400억원, 에쓰오일은 710억원의 재고손실을 떠안았다.

더 큰 문제는 정제마진이다. 업체가 정제 과정을 거쳐 원유를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과 파라자일렌(PX), 올레핀 등 석유화학제품으로 가공하기까지는 30~50일 정도가 걸린다.

유가 급락은 석유화학제품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하락세가 이어지면 업체는 과거 비싸게 산 원유 재고로 값 싼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두바이유를 기반으로 한 단순정제마진은 3월부터 마이너스(배럴당 -0.20 달러)로 돌아서 8월 -2.40 달러까지 내려갔다. 원유를 가져와 정제탑에 넣고 돌리는 순간 배럴당 2.40 달러씩 손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고도화설비를 거치는 복합정제마진은 4월 배럴당 6.51 달러에서 8월 4.42 달러로 떨어져 본전을 건지기 위한 마지노선인 배럴당 5 달러를 밑돌았다.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그러나 유가가 하락을 멈추고 저유가인 채로 안정화되면 정제마진 상승에 기여하는 순풍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

신한금융투자는 두바이유 기준 내년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96.4 달러로 올해 배럴당 101.3 달러 대비 4.8%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심의 공급 증가와 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부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유가가 올해 2분기보다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면 정유업체는 재고를 소진한 이후 오히려 저유가가 원가 절감 요인이 되는 것이다. 유가가 1달러 떨어지면 지난해 원유 도입량을 기준으로 SK에너지 3억 2000만 달러, GS칼텍스 2억5000만 달러, 에쓰오일 2억2000만 달러 상당의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상태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면 정제마진 또한 커진다. 실제로 석유화학제품과 윤활유 시황은 회복세에 들어서 PX-나프타 스프레드는 올해 t당 348 달러에서 내년 374 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한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고급 윤활기유를 찾는 수요도 부쩍 늘었다.

이응주 애널리스트는 "두바이유가 하락세를 멈췄고, 중동 산유국도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하방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현정은 회장 '임원 경쟁력 강화' 심혈

'비전 포럼' 매월 개최… 이달로 80회째 맞아

현대그룹이 임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그룹의 임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전 포럼'이 80회를 맞았다. 현대는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임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매월 진행되는 비전포럼은 임원의 경영마인드와 자질 향상을 위해 현정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임원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빙 강사만 100여명에 이른다.

현정은(사진) 회장은 평소 "임원은 다양하고 깊이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최신 선진 경영 전략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임원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임원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7시면 종로구 연지동 그룹본사 사옥에서 초빙강사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사회·경제 이슈에서부터 인문학,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듣는 것은 물론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룹 계열사 임원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비전 포럼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고, 강연 주제는 강사의 자율에 맡긴다. 그런 만큼 현대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진행돼 참석 임원의 반응도 뜨겁다. 주제는 ▲올해의 경제 전망 ▲행복한 삶의 조건 ▲마음 성공 ▲리더를 위한 최신 스트레스 관리법 ▲한국인의 심리 코드 등 다채롭다.

이번 비전포럼은 80회를 기념해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이란 주제로, 김태환 현대경제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현대그룹은 또 매년 임원 교육프로그램으로 'HELDP(Hyundai Executiv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를 통해 임원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집속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새로 개원한 양평 종합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ksuh@

신재웅·오지환 야구교실 진행 15일 익산 야구장에서 열린 '2014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에서 LG트윈스의 신재웅, 오지환 선수가 야구교실을 진행하고 여자야구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대우건설-포스코, 포괄 기술 협력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비용은 분담하고 성과는 공유해 양사의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격 손을 잡았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14일 R&D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기술협력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융복합형 기술, 신시장 개척 기술, 신사업 견인 기술 등에 대해 연구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비용은 분담하고 성과는 공유해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모두 종합건설사이지만 R&D분야에서 대우건설은 토목, 건축분야에서 포스코건설은 플랜트, 환경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우건설은 대형구조실험동, 풍동실험동 등 기초실험동을 갖춘 기술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극한기술, 에너지분야 연구 등에 활용될 첨단실험동을 송주에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살려 양사는 각각의 연구시설을 공유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거 국내 건설사 간의 경쟁으로 R&D 분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 개발 수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되어 양사의 기술 및 수주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학식기자 kks@

소리없는 강자 1층…이제는 로열층

찬밥 신세서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로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살고 있는 양 모씨는 며칠 전 집을 팔 생각이 없냐는 부동산의 전화를 받았다. 3살과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 1층만 알아보던 수요자가 새시가 수리된 양씨의 집을 보고 부동산을 통해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지만 양씨도 한창 뛰어다닐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 결국 팔지 않았다.

#최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한 모씨는 12층과 1층짜리 집 가운데 주저 없이 1층을 선택했다. 이전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과의 시비가 잦았던 기억 때문이다. 1층은 가격도 안 오르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며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정작 한씨는 더 이상 아랫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1층 아파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생활 침해, 범죄 노출, 일조권 부족 등의 문제로 1층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음 편한 1층을 찾는 수요자들이 느는 추세다.

건설사들의 특화설계도 1층 세대의 인기를 견인하는 요소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은 천정고 상향, 테라스하우스, 지하다락방 제공 등 1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평면을 선보이고 있다. 또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로티

1층 세대에 적용되는 테라스하우스 전경

구조를 취하고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해 저층 세대의 불안감을 줄여주기도 한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에 공급한 '꿈의숲 롯데캐슬'은 1층에 필로티 또는 데크를 적용했다. 2층 같은 1층이 만들어지면서 개방감과 쾌적함이 강화됐다. 또 저층 일부에 테라스하우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금강주택이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에 선보인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일부 동을 3층 필로티로 설계, 1층이지만 4층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줬다. 현대건설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 꿈에그린'에 저층 테라스하우스를 조성했다.

삼성물산이 서울 마포구 현석2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은 1층 천장고를 다른 세대(2.3m)보다 높은 2.5m를 적용해 공간감을 확대했다. 아울러 저층 가구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해 외부 침입에 따른 입주민의 안전을 배려했다.

함영진 리얼투데이 팀장은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건설사들의 저층 특화설계가 맞물리면서 1층만 찾는 수요가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로열층에 비해 환금성은 떨어지는 만큼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u0928@metroseoul.co.kr

KT, 임자도서 사물인터넷 꿈나무 만난다 KT는 창조경제 스마트뉴딜 실천연장과 아이들에게 미래 IT전문가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전남 신안군 임자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IoT 창의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지정석 없앤 MS… 형식적인 업무↓·협업 작업↑

르포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한국MS 신사옥 1주년에 대한 느낌이다.

공간을 만드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 공간에 다시 지배된다는 점에서 건물 구조는 삶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회사 건물 구조가 직장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 지정석과 종이 문서를 없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신사옥 구조는 파격 중 파격이었다.

한국MS는 지난 13일 광화문 신사옥 이전 1주년을 기념하는 '프리스타일 워크플레이스' 구축 성과를 공개했다. 한국MS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아 강남에서 광화문으로 사옥을 옮겼다.

한국MS 신사옥은 1년 전과 비교해 외관적으로는 변함이 없었다. 총 6개층의 한국MS 사무실의 한면은 통유리로 만들어져 광화문 안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신사옥 공개 행사가 열렸던 지난해 가을처럼 단풍이 울긋불긋 고궁을 수놓고 있었다. 한국MS 사무실 가운데 2개층은 고객 미팅용으로 개방된다.

나머지 4개층은 직원 업무 공간인데 지정석이 없다. 신사옥 구조를 기획한 정우진 컨설턴트는 "회사 공간은 근무 방식으로 이어지는데 직원들이 경직된 상황에서 근무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서끼리 한 공간에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 직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날의 업무 방식과 집중도에 따라 독서실형, 회의실형 등의 근무 공간을 택해 일한다.

이같은 모습은 한국 기업문화는 물론 동종업인 IT기업 근무 방식과도 상당히 동떨어졌다. 하지만 1년만에 '내부적'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MS의 신사옥 1년 성과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지정석을 없앤 결과 최소 2인 이상이 협업하는 업무 시간이 하루 평균 3~4.5시간으로 기존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흩어져 일하는 방식이 오히려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회의 문화도 개선됐다. 직원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겹치도록 공간을 디자인했더니 하루 평균 1.5회로 이뤄지던 형식적인 미팅이 감소됐다.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회의가 하루 평균 3~5회로 늘어났다.

한국MS의 광화문 신사옥 1주년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탄생시키는 산실이 될 지 기대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꼼꼼 IT 리뷰 - 삼성전자 커브드 사운드바(HW-H7501)

웅장한 입체감으로 놀라움과 감동 선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이 대화면 커브드 TV 경쟁에 나서면서 가성비 뛰어난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덕분에 최근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화면과 선명한 화질에 몰입해 영상을 즐기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출시한 커브드 사운드바(HW-H7501)를 설치해 사용해 봤다. 일주일간 사용하며 내린 결론은 놀라움과 감동이다.

3년전 B사의 사운드바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삼성 커브드 사운드바를 만난 첫 느낌은 과거 사용한 제품보다 4배 가량 길어져 왠지모를 기대감이 생겼다. 여기에 42㎜의 두께의 알루미늄 메탈 소재를 적용해 잘 빠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품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출시된 홈 시어터 스피커의 설치방식과 달리 간편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 부품은 우퍼와 사운드바 단 두개 뿐이며 TV와 무선으로 연결 할 수 있어 깔끔하게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혼자서도 제품을 설치하는데 부담이 없었다. 제품 설치후 TV 사운드와 사운드바의 음질을 비교했다. 애초 비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사운드바로 음악을 들었을때는 TV사운드와 달리 8개의 사운드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선명하면서도 음역에 따라 묵직함과 경쾌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중저음 영역 강화와 소리 왜곡도 줄어들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연금장면으로 꼽히는 영화 '더 콘서트'를 재생해 봤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 울려퍼지는 마지막 10분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 외에도 TV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스마트기기와 뛰어난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제품 출고가는 89만원. /양성운기자

폭스바겐 파사트

르노삼성 SM7

3000만원대 대형차…'내가 최고'

파사트 '탄탄한 주행감각'·K7 '가속력 발군'·SM7 '안락한 승차감'

임의택의 차차차

■ 파사트 vs K7 vs SM7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00만~4000만원대 국산차를 타던 이들이 수입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 가격대의 승용차 중 최근에 발표된 폭스바겐 파사트 1.8(3450만원)과 기아 K7 3.0(3300만원), 르노삼성 SM7 노바 2.5(3490만원)를 차례로 시승해봤다. 배기량은 약간씩 다르지만 성능과 가격이 엇비슷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차들이다.

외관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헤드램프다. SM7은 바이 제논, K7은 HID, 파사트는 할로겐 타입을 썼다. SM7은 램프 하나로 상·하향등을 조절하고 핸들 조작에 따라 조사 각도가 변하는 바이 제논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채택해 기능 면에서 가장 앞선다. 다만 이 램프는 최고급형인 RE 모델에만 장착되고 그 아래 급은 선택할 수 없다. 파사트의 할로겐 타입은 광도(光度)와 세련미에서 떨어진다. 경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 ●폭스바겐 파사트 1.8
> ▲한 줄 평가: 배기량을 뛰어넘는 저력
> ▲평점 ★★★★

대시보드는 SM7이 가장 복잡하고 파사트가 가장 단순하다. 센터페시아의 경우 SM7이 3단 구성으로 아래쪽까지 스위치가 배열된 반면 파사트와 K7은 2단 구성이고 아래쪽은 비워두었다. 운전자의 시야 집중도 면에서 파사트와 K7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엔진 출력 크기는 배기량 크기 순서대로다. K7 3.0이 270마력, SM7 2.5는 190마력, 파사트 1.8은 170마력이다. 반면 최대토크는 31.6kg·m의 K7에 이어 25.4kg·m를 내는 파사트가 24.8kg·m의 SM7을 앞선다. 배기량은 파사트가 SM7보다 700cc 정도 작지만 터보차저로 이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다.

K7은 비교 차종 중 가장 앞선 제원을 갖춘 차답게 가속력에서 가장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 파사트의 성능은 더욱 놀라웠다. 비교 차종 중 배기량이 가장 작아 시승 전에는 큰 기대를 안 했으나 실제 주행은 데이터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비교 차종 중 유일하게 장착된 터보차저가 위력을 발휘했다. K7의 최대토크가 5300rpm에서 나오는 고회전 타입인 반면 파사트는 1500~4750rpm에서 나오는 플랫 토크 타입이다. 파사트는 SM7보다 출력에서 뒤지고 최대토크가 살짝 앞서지만, 공차중량이 훨씬 가벼운 데다 저회전부터 최대토크를 내는 엔진 덕에 가속이 사뿐스럽다. 가속 페달을 밟은 후 뜸을 들이고 가속하는 SM7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 ●기아 K7 3.0
> ▲한 줄 평가: 안정된 주행감각과 출력이 돋보인다
> ▲평점 ★★★★

배기량을 감안하면 SM7 2.5의 라이벌은 K7 2.4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K7 2.4는 최고출력이 201마력이어서 여전히 SM7 2.5보다 우위에 있다. K7은 3.3과 3.0, 2.4 등 3가지 모델이 있는데, 파워와 연비를 두루 감안하면 3.0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SM7은 3.5 엔진이 더 어울리는 차다.

> ●르노삼성 SM7 2.5
> ▲한 줄 평가: 안락함을 원하는 이에게 맞다. 가속성능과 핸들링은 기대 떨어진다
> ▲평점 ★★★ (다섯 개 만점)

파사트는 탄탄한 주행감각으로 직접 몰 때 가장 즐거운 차다. K7은 앞좌석과 뒷좌석을 두루 배려해 넓은 수요층을 겨냥했다. SM7은 뒷좌석 VIP 패키지(265만원)를 마련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오너드라이버보다는 쇼퍼 드리븐에게 어울린다. SM7의 승차감은 비교 차종 가장 물렁물렁해 안락한 차를 원하는 이에게 어울리지만 운전 재미는 떨어진다.

세 차종의 가격은 엇비슷하다. SM7 2.5 RE는 차량 가격 3490만원에 파노라마 선루프와 내비게이션을 더하면 3650만원이고, K7 3.0은 기본 가격 3300만원에 같은 사양을 적용할 경우 3519만원이다. 파사트 1.8은 기본 가격 3450만원이고, 비교 차종에 없는 18인치 휠과 비롯해 리어 스포일러 등의 패키지를 장착한 1.8 스포츠 모델은 365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기아 K7 3.0

겨울철, 차량 점검 미리 하세요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는 17일 초겨울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차량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초겨울에는 안개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전조등·미등·안개등과 같은 등화기기의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 또 초겨울 추위로 유리에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여름에 가을동안 장거리 운행이 잦았다면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이 새거나 줄어들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낮은 기온으로 엔진 등 기기 내부에 있는 수분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도 확인해야 한다.

기온이 낮을 때 공기가 수축돼 공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점검이 중요하다. 배터리 소모가 많은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차량 배터리 전력의 양이 맞는지 ▲배터리 본체의 이물질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중 예기치 못한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kt금호렌터카의 전국 170여개 영업망을 통해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대차 전용 콜센터 1588-4720.

/김민지기자

랜드로버, 한강 요트대회 연다

2014 랜드로버 한강요트대회가 15일 서울 마리나 클럽&요트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데이비드 맥킨타이어)가 주최하는 한강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크루즈 요트 대회다.

데이비드 맥킨타이어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대표는 "많은 시민들에게 요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회 장소를 한강으로 선택했다"며 "요트대회의 F1이라고 불리는 익스트림 세일링 시리즈에서 활약 중인 랜드로버 익스트림 40가 한국을 찾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뉴 투싼ix	-	-	1,900	2,150	2,270
	베라크루즈	2,050	2,300	2,590	3,010	3,480
	싼타페 DM		-	-	2,630	2,720
기아	스포티지R	-	1,710	1,790	1,830	2,030
	카니발	-	1,840	2,060	2,350	2,490
쉐보레	캡티바	-	-	1,830	1,920	2,340
	올란도	-	-	1,450	1,650	1,800
르노삼성	뉴 QM5		1,420	1,510	1,530	2,230
폭스바겐	티구안	2,210	2,510	2,650	3,250	3,390
혼다	CR-V	1,870	2,000	2,040	2,250	
포드	익스플로러	-	-	3,150	3,850	3,76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랜드로버 한강요트대회는 국내 요트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로 2회를 맞는다. 15일 하루 동안 서강대교와 당산철교 사이 수상에서 공식 레이스가 펼쳐졌다.

올해 대회에는 총 25척의 요트와 12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는 요트 전문인이 출전하는 ORC와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오픈 클래스로 나뉘어 종목별 우승부터 3위 입상자까지 상금과 부상이 수여됐다.

/임의택기자

'무상복지 시리즈' 포퓰리즘 차단해야

청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그토록 우려했던 포퓰리즘에 춤추던 무상복지시리즈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이 재정적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 '포기선언'을 하고 다른 지자단체도 동조할 태세다.

더욱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13일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무상복지 감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상급식·기초연금·무상보육 등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올해에 21조8,110억원이며 3년 뒤인 오는 2017년에는 37%나 늘어난 29조8,37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 국세 세입증가율은 낙관적으로 보아 17%에 불과하다. 결국 재정을 크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다시 증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표 200억원 이상 22%로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도 아니다. 싱가포르와 대만 등 주요경쟁국은 17%이고 홍콩은 이보다 낮은 16.5%이다.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아직 낮다고 하나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6개국에 그치고 있다.

부자 증세도 국민정서상으로는 동조할 수 있으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증세에 의존한 무상복지 정책은 선택의 폭이 아주 좁다. 이제 무상복지 정책은 실현 가능한 범위를 정해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키울 경우 유럽의 일부국가가 체험한 악순환의 전철을 밟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30명중 80명이 서명해 신혼부부에 '무상임대주택'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결의했다. 전체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5~10년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늘려 신혼부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이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채당 1억 원만 잡아도 1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바람이 다시 요동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여야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포토프리즘

사랑의 김장나누기 인파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사랑의 김장나누기 축제'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12만 포기의 김치는 홀몸노인 등 2만5000여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손진영기자 son@

'게임=마약' 국가이미지 상승 없다

뉴스룸에서

이국명

<경제·산업부장>

독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경제대국·문화강국이다.

유럽 경제의 실질적 맹주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바하·베토벤·슈베르트의 고향에 걸맞게 화려한 문화예술을 자랑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을 제치고 국가이미지 챔피언에도 올랐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업인 GfK의 올해 국가브랜드지수(NBISM)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2009년부터 이 조사에서 수위를 지키던 미국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등극했다.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 사회적 평등은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이같은 독일이 최근에는 게임 강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재인식한 독일 지방 정부들이 10여 년 전 부터 경쟁적으로 게임을 키우기 시작한 덕분이다. 1990년대 말 만해도 독일에는 변변한 게임회사가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무려 300여 개의 게임업체가 활동중이다.

독일 지방정부들은 한국 게임업계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연방주가 오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14 에서 한국 게임사 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지스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던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에 이어 두 번째다.

미하엘 리비 독일 베를린 연터내셔널 게임스 위크 조직위원장은 "독일은 국가적으로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때 게임 강국이었던 한국의 모습은 정반대였다.

K-팝 수출액의 무려 11배가 넘으며 국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 문화 산업의 성장을 정부가 앞장서(?) 가로막고 있다. 2011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밤 12시 넘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성인들에게 해가 된다며 웹보드게임 규제 도입을 강행했다.

국회에서도 게임을 마약·술·도박과 묶어 4대 중독 물질로 규정·관리해야 한다는 법안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한국 게임시장 규모(9조7525억원)는 전년에 비해 -0.3% 감소해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13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국가이미지 순위도 겨우 27위에 불과하다. 게임을 문화산업이 아닌 '마약' 취급하는 한 독일과 같은 국가 이미지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시장의 중재자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A회장은 부동산개발사업만 20년 이상 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세우고 익힌 게 개발사업뿐이라 멈추지 않았다. 5년 넘게 공을 들인 야심작은 투자자·은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차례로 꺾이면서 표류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가 보유한 대지를 몇 배의 값을 쳐줄 테니 넘기라는 중국시행사였다. 그의 야심작은 조 단위 사업이었지만 그의 몫은 백 억 원도 못 미쳤다. 세 배 이상의 값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돈을 손에 쥐는 순간에 주저한 건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었다.

B팀장은 명동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 글로벌 브랜드를 입점 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다. 국내 최고의 백화점에 매장을 개설하고, 2015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로 영역을 넓힐 생각에 취해 관심 없는 층을 돌았다. 동선을 따라 삼십 분쯤 돌았을 때 깨달았다. 한국어를 듣지 못한 것을. 좀 전세에 적지 않은 고객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그들은 면세점 쇼핑을 마쳤는지 'Duty Free'가 새겨진 봉투를 양손 가득 든 채였다. 얼굴을 봉대로 칭칭 감은 성형 관광객도 넘쳤다. 지인이 조언했다. 매장 개설해서 운영하지 말고 몰라고.

브로커의 시대라 할만하다. 관광가이드는 밥 굶기 딱 좋은 직업이다. 관광브로커는 존재할 이유가 되는 까닭이다. 개인파산자는 숫자를 세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벌리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정도다. 법률브로커는 변호사보다 많은 돈을 챙긴다. 의료브로커는 거대하다.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속칭 금융브로커는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공포의 존재다. 담장 현금을 돌릴 수 있게 해주지만, 회수는 잔인하다.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인재가 쌓이는데 시회는 브로커를 통해야만 하는 요지경이다. 부동산 개발·패션 매장에도 브로커 명함이 돌아다닌다.

세상은 혼자 살기 어렵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엮이고 둘러싸여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 안에서 빠른 길은 없다. 그렇게 보이는 길이 있을 뿐이다. 편리한 선택은 없다. 관리한다고 믿는 오만함에 불과하다. 브로커는 유효하다. 다만 유효함의 크기가 부담이나 불법의 규모보다 미미한 건 안 된다. 이 어려운 시장의 중재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브로커가 스스로를 중재자로 선언하고, 당당한 얼굴로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돈 버는 게 장땡이라는 욕심 말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라는 자부심으로.

/트렌드컨설팅(www.tr.co.kr) 대표

갈길 먼 보험사 '신뢰회복'

기자수첩

김정석

<금융시장부 기자>

보험업계가 최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보를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화두로 떠올랐다.

반세기 동안 보험사는 성공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2012년 현재 수입보험료가 1393억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비율도 12.1%로 세계 5위다. 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1건 이상 보험에 가입했다. 이정도면 세계 정상급 규모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보는 '보험'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캡제미니가 발표한 '2014 세계 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0개국 중 꼴찌였다.

이달 초에 개최한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대책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 교수는 "대학에서 보험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 졸업 이후 보험업계에 종사하길 꺼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세미나에서도 한 토론패널은 "어머니가 수십년 전에 보험을 계약했다가 2달 만에 해지했는데 보험금을 일체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계에는 보험사기 등 블랙컨슈머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는 관계자도 많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된 '재해자살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사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신의'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진심으로 성찰하고 소비자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연단을 나르는 것보다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아닐까.

식품업계, 잇단 신사업 진출 '눈길'

유통 노하우 등 접목…신성장 동력 찾기 안간힘

식품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신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시장을 찾고자 내부 자원과 노하우를 살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브랜드 강화와 매출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먼저 조정단산수로 친숙한 '일화'는 인삼(홍삼)과 제약 전문 기업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자사의 의약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생산 노하우를 살려 신개념 건강 브랜드 '예비채(yevi che)' 1호점을 서울 중랑구 묵동에 오픈했다.

방문판매 시스템의 종합 헬스 케어 브랜드로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등 개인에 맞는 건강습관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헬스케어센터에서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헬스케어 마스터들이 고객과의 1대 1 상담을 통해 고객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전용 건강기능식품 7종도 출시됐다.

일화 '예비채' 내부 전경 /일화 제공

이랜드그룹 '로운샤브샤브' 내부 전경 /이랜드그룹 제공

이랜드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의 핵심 상권이자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인 홍대에 외식 패션 리빙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랜드 뷔페형 외식 복합공간'을 오픈했다.

뷔페형 외식 브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신개념 한식 샐러드바 '자연별곡', 무제한 피자 뷔페인 '피자몰', 뷔페식 샤브샤브 & 샐러드바 '로운' 등 3개 브랜드가 나란히 입점해 있다. 또 문구류부터 인테리어 소품 등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퍼스트 리빙 휴캐션 슈 버터와 국내 최초 신발 SPA 브랜드 슈펜도 같은 공간에 위치했다. 이 매장을 통해 젊은 층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을 운영하는 식품 전문 기업 SPC그룹도 신규 사업을 통해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SPC그룹은 지난 9월 광화문에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커피앳웍스'를 개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4개 층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SPC스퀘어'를 오픈했다.

복합문화공간이 일명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에 따라 첨단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미래형 외식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 오더 시스템', 전자지갑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그룹은 또 최근 프랜차이즈 계열 노하우를 살려 식자재 유통업체인 '삼립 푸드서비스 앤드 로지스틱스(가칭 삼립푸드)'도 설립했다.

프리미엄 디저트 열풍에 동참한 기업도 눈에 띈다. 매일유업은 아이스크림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매일유업은 유제품 제조 판매 기업인 만큼 자사의 유기농 우유 브랜드인 '상하목장'의 원유를 적극 활용했다.

매일유업은 커피전문점 '폴 바셋' 매장에서 상하목장 아이스크림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롯데백화점 건대 스타시티점 식품관에 상하목장 아이스크림 1호점을 오픈하기도 했다.

이 밖에 롯데제과는 최근 햄버거용 빵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롯데제과는 자회사인 롯데브랑제리를 흡수 합병하고, 롯데리아에서 소비하는 햄버거용 빵의 일부를 생산해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희기자 pms@metroseoul.co.kr

미에로화이바 레드, 스낵김, 행복한 콩 (왼쪽부터)

불황 여파 세컨드제품 출시 붐

식·음료업계, 경쟁력 강화·매출 증대 노려

최근 식·음료업계에서 세컨드 제품 출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미 시장성이 검증된 기존 대표 제품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제품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기존 충성도 높은 소비자 층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먼저 누적 판매량이 약 16억 병에 달하는 등 여성 소비자 층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대약품의 '미에로 화이바'는 출시 25주년을 맞아 새롭게 '미에로 화이바 레드'를 내놨다. 이 제품은 식이 섬유 음료로 기존 제품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음료의 맛과 컬러 변경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것이다. 식이 섬유 5g을 함유한 이 제품은 상큼한 자몽 향의 저칼로리(15㎉) 저당류(6g) 식이섬유 음료로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국내 조미김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동원F&B 양반김은 최근 간식용 김 제품인 '양반 스낵김' 3종을 출시했다. 스낵 형태의 '양반 스낵김'은 김 두 장 사이에 어몬드, 동일, 이팜 등을 넣고 바삭하게 구운 제품으로 데리야키 소스, 불 닭 소스 등 김과 어울리는 소스를 가미해 풍미를 살렸다.

팔도는 어린이 음료 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뽀로로 음료'에 이어 '뽀로로' 캐릭터를 라면 제품에 적용한 '뽀로로 짜장' 컵면을 출시하면서 자사의 어린이 식품 라인을 확장했다.

CJ제일제당은 두부 칼슘의 흡수를 돕는 신개념 두부인 '행복한 콩 고소한 두부 비타민D'를 출시했다. 지난 2006년 론칭해 콩의 영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행복한 콩' 두부는 소포제·유화제·천연응고제를 넣지 않은 순수 무첨가 두부다. CJ제일제당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 성분인 비타민 D를 함유해 두부의 기능성과 맛을 한 층 업그레이드했다. /양성희기자

강강술래 "품격·실속 송년회 장소로 인기"

다양한 규모의 연회장, 단체룸 마련
단체예약시 한우육회·현수막 서비스

본격적인 송년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월평균 25만 명 이상의 고객이 찾는 외식명소 '강강술래'가 품격과 실속까지 갖춘 연말모임과 회식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강강술래는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비롯해 15명 이상의 소형 단체룸 등 매장별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모임의 성격에 맞춰 품격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12월 말까지 3인 이상 사전예약 때 한우육회를 테이블 당 1접시씩 서비스로 제공한다.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 한우육회와 함께 현수막을 제작 지원해준다. 구이메뉴(정식류, 해피아워 제외) 주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가격보증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만9800원,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또 등산·캠핑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X10봉)'도 40% 할인된 3만6000원에 선보인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컨셉의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전략서 '작아도 크게 버는 골목가게의 비밀'과 진짜 실력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위험한 자신감'을 증정한다. /양성희기자

홈쇼핑업계, 차별화 경쟁 나서

새로운 상품 개발·판매 방식 시도 잇따라

홈쇼핑 업계가 새로운 상품과 판매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자동차 용품 전문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제로백 0100'에는 자동차 전문 기자가 출연해 자동차 튜닝 노하우와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쇼퍼테이너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단순 판매에서 벗어나 방청객을 초청해 정보를 전달하고 쌍방향 소통의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유길상 신사업개발팀 MD는 "정말 필요하지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튜닝 제품을 인테리어에서 외장 튜닝까지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달 말까지 현장에서 라이브로 중계하는 '찾아가는 홈쇼핑'을 진행한다.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생방송 중 LTE 생중계로 현장을 연결해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오는 21일 오후 5시40분부터 방송되는 '최상의 요리비결'에서는 고교 학급으로 직접 찾아간다. 고교 교실 습격사건 시즌 2'를 진행해 Dole 후룻&넛츠와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등을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화장하고 예뻐지세요"

예비 대학생 위한 메이크업 노하우

수능 시험이 끝났다. 고3 수험생들은 그동안 쌓인 입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참아왔던 외모 가꾸기에 눈을 돌릴 때다. 내년에 예비 대학생이 되는 여고생들을 위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노하우를 소개한다.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푸석해진 피부는 메이크업 기능과 보습기능을 두루 갖춘 베이스 제품으로 진정시키는 게 좋다.

아리따움 '오일 세럼 CC크림'은 에센셜 보습 성분이 45% 함유돼 촉촉한 오일 보습 효과는 물론 하루 종일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준다. 또 피부 결점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가볍게 발려 화장을 처음하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제품이다.

스킨케어 시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한율 '자초 윤기 보습 오일'은 100% 천연 유래 자초 성분이 피부에 보습과 윤기를 더해주는 자자극 윤기 보습 오일이다.

눈화장 시에는 스모키나 어두운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풋풋하고 상큼한 여대생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튀지 않는 색상의 아이섀도를 바르고 아이라인은 최대한 얇게 한다.

은은한 핑크빛 섀도를 베이스로 눈두덩이에 바르고, 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점막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린다.

메이크업의 완성은 '입술'이다. 특히 촉촉하고 생기 있는 입술은 피부를 더욱 화사하게 만든다.

코랄·핑크 색상의 립스틱을 입술 안쪽부터 가볍게 그라데이션을 주듯 바르면 자연스럽게 물든 입술이 연출된다.

/이국희기자

'2014 사랑의 김장나누기' 축제

한국야쿠르트, 서울광장서 12만포기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

2014 한국야쿠르트 사랑의 김장나누기 축제 / 야쿠르트 제공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한국야쿠르트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나눔은 건강한 습관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이날 노란 유니폼에 빨간 앞치마를 두른 1000여 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수년간 쌓아온 김장 실력을 발휘했다. 김혁수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주한 외교관들도 함께 참여해 김장 배추를 버무렸다.

이날 만든 김치의 총량은 250t. 이중 절인 배추가 12만포기로 200t이었고, 양념 무게가 50t에 달한다. 김장김치는 약 10Kg(5포기 내외)씩 포장돼 담인 저녁부터 홀몸노인 등 2만5000여 가구에게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갓 담근 김치와 성금을 전달해 아픔을 함께 나눴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14년의 역사

2001년 부산의 한 야쿠르트아줌마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2004년 이후 수도권·전국으로 확산돼 한 날 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야쿠르트아줌마들의 지역 풀뿌리 봉사활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 행사로 한국 사회공헌활동의 기록이 여러 번 깨졌다. 2008년(131t)과 2012년(140t)에 한국기록원을 통해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많은 김장을 담근 한국 최고 기록'을 인증 받았고, 지난해에는 같은 주제로 2600여 명이 김장을 담가 월드 기네스 기록까지 수립했다.

◆농민, 어려운 이웃과 상생 실현

한국야쿠르트는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통해 농민에게는 농산물 가격 등락에 관계없는 안정적 수익을, 소비자층에게는 건강한 김치를 가없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 3자 간 상생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승전 논산 새마을지회 국장은 "올해 김장철 배추 값이 예년에 비해 12% 가량 하락해 농민들의 상심이 크다"며 "기업과 계약재배를 통해 배추 값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대한 만큼의 수입을 올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14년간 수혜자만 2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2010년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1733만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혁수 한국야쿠르트 사장은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14년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야쿠르트아줌마의 마음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나눔이라는 건강한 습관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일손 덜어주는 조리도구 눈길

편리한 재료 손질 제품 출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주부들을 위한 아이디어 조리도구들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배추 다듬기부터 무채 썰기, 쪽파 썰기 등 김장철이면 유독 칼을 사용할 일이 많아진다. 다듬고 손질할 야채의 양이 많은 김장철 절삭력 좋고 칼날에 야채가 달라붙지 않는 쌍도구 칼은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우스토프의 클래식 G산토쿠17은 비스듬한 홈이 칼과 식품 사이에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칼에 얇은 조각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줘 편리하다. 칼날의 몸체와 이어진 손잡이는 칼을 지탱해주는 엄지손가락을 편하게 해주고, 칼자루와 손잡이를 이어주는 부분의 틈새가 없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막아준다.

생강·마늘·무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를 간편하게 손질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됐다.

옥소 굿그립의 김장 조리도구 3종은 마늘 다지기, 생강 필러, 핸디형 슬라이서 등으로 구성됐다. 마늘 다지기는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마늘을 손쉽게 다질 수 있다. 생강 필러를 이용하면 둥글게 휘어진 스테인리스 칼날로 손을 다치지 않고도 생강 껍질을 벗길 수 있다. 핸디형 슬라이서는 가는 채칼로 무·배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를 빠르고 간편하게 썰어준다.

타파웨어 브랜즈의 점보차퍼는 커버의 손잡이를 12번 당기면 전기 없이도 270번 칼질하는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1.2ℓ 대용량으로 많은 양의 재료를 다질 때 사용하기 좋다.

/김수정기자 ks1182@

"겨울엔 패딩이 최고" 16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어린이 고객이 플로렌스&프레드의 패딩을 입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남아 여아 총 7가지 스타일의 패딩조끼와 패딩점퍼를 1만9000원부터 4만9000원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이번 시즌 대표 상품으로 폴리에스터 5000점 기획 물량으로 출시해 3만9000원에 판다. /홈플러스 제공

태국의 진정한 매력을 만나다

태국관광청, 숨겨진 보석 12곳 가이드

겨울이 되면서 따뜻한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Discover Thainess'를 주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태국정부관광청이 태국을 여행할 때 꼭 봐야 할 12개의 숨겨진 보석을 추천했다.

12곳은 북부지역의 ▲람빵 ▲펫차분 ▲난 등과 이산지역의 ▲부리람 ▲러이 그리고 중부지방의 ▲사뭇 송크람 ▲랏차부리 등이다. 또 동부지방에서는 ▲트랏 ▲짠타부리 등을 빠뜨릴 수 있으며 남부지방에선 ▲뜨랑 ▲춤폰 ▲나컨 시 탐마랏에 가봐야 한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이들 12개 지역에는 다른 곳보다 더 태국다운 아름다움과 문화가 있으며 태국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타와차이 아란익 태국관광청 청장은 "12개의 숨은 보석은 관광객들에게 미소의 나라 태국을 기억하게 만들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윤체용기자 toto@

신라스테이 동탄, 1주년 패키지 선봬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신라스테이 역삼서는 와인 제공

호텔신라의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www.shillastay.com) 동탄에서 오픈 1주년을 기념해 14일부터 한 달간 베스트 아이템을 담은 'Happy 1st Birthday' 패키지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판타지 와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두 개의 축제로 에버랜드에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연인과의 로맨스를 만끽한 후 호텔에서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패키지다.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신라호텔의 맛을 담은 뷔페 레스토랑 Cafe 조식 2인 등으로 구성됐다.

스페셜 특전으로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신라스테이 동탄 숙박권을 1매를 제공한다.

패키지 가격은 주중 30만9000원, 주말 25만9000원이다(10% 세금별도). 상품은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라스테이 역삼은 이달 21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Cafe에서 주중 디너 뷔페 이용 고객에게 뷔페와 잘 어울리는 프리미엄 와인 라비에이유 페름(LA VIEIL FERME) 1병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스마터 스테이(Smarter Stay) 를 콘셉트로 신라호텔의 상품과 서비스 가치 위에 새로운 감성을 더한 공간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신라호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특1급 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와 고급 어메니티인 AVEDA 제품이 각 객실마다 비치돼 있고 뷔페 레스토랑 Cafe에서는 신라호텔의 엄선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또 신라스테이는 역삼 오픈에 이어 내년 3월에 신라스테이 제주 오픈을 앞두고 있다. 문의 (02)2230-3000

/김수정기자 ksj8215@metroseoul.co.kr

중이염, 방치하면 만성된다

의사소통 어려운 아이 꼼꼼한 관찰 필요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지나면서 중이염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어관 기능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아이들은 질환 발생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한 번은 앓게 되는 중이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감염이나 염증, 혹은 중이와 상기도를 연결시키는 이관의 문제 등이다. 감기에 걸린 상황에서 코를 세게 풀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을 타고 콧물 세균이 중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만성 중이염은 고막에 구멍이 있어서 만성적으로 귀 속에 염증을 갖게 되는 질환이다. 고막 속이 염증으로 꽉 차서 고막이 중이 내벽으로 유착되거나 고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질환은 약물 치료 등 비교적 쉽게 회복이 가능하며 건강한 성인이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가 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감기를 앓은 후라면 더욱 아이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귀를 자주 잡아당기거나 귀에서 진물이 흐르는 경우, 듣는데 문제가 있거나 잠을 잘 못 자고 많이 보채면 중이염일 가능성이 있다.

강정수 아이케어네트워크 강정수이비인후과 원장은 "소아의 경우 뒤늦게 중이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 중이염일 경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합병증이 오기 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멋내는 '레그웨어' 내 몸 망친다

지나친 하복부 압박 하지정맥류 유발 조심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스타킹과 레깅스 등 이른바 '레그웨어'가 대세다. 소비자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면서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은 이 작은 사치는 실제로 매년 10%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바지나 치마에 비해 몸에 꼭 끼는 레그웨어를 즐겨 입다 보면 오후가 지나면서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하지정맥류의 조기 신호로 장시간 하복부를 죄는 옷차림을 지속적으로 착용할 경우에는 다리 정맥 속 혈관이 강한 압박을 받아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붓거나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다가 피부 표면 아래로 울퉁불퉁 혈관이 튀어나오게 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피부색이 검게 변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또 이런 증상은 특히 멋을 내는 20~30대 젊은 여성에게서 더 잦아지고 있다.

만약 다리가 평소보다 자주 붓거나 피곤하고 다리나 허벅지에 푸른 혈관이 비친다면 우선 하지정맥류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꽉 끼는 의상과 굽이 지나치게 높은 구두의 장시간 착용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야 한다.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을 꼽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꽉 끼는 레그웨어를 자주 입는다면 집에서는 반드시 편한 옷으로 갈아 입은 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을 고를 때는 신축성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고 과체중 역시 혈관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평상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제원 강남연세흉부외과 원장은 "스타킹과 레깅스 뿐만 아니라 하이힐과 꽉 끼는 보정 속옷, 스키니진 등이 하지정맥류 주요 발병 원인"이라며 "평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염분이 많은 음식도 혈관을 약하게 하는 주범이므로 싱겁게 조리한 음식을 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황재호기자 hoo@

이화의료원, 베트남에 의료기술 전수

빈맥 국제병원과 LOI 체결… 유방암 수술법도 시연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빈맥(VINMEC) 국제병원과 협력 의향서(LOI)를 최근 체결했다.

이번 협력 의향서 체결로 의료원은 향후 양 병원 간 교류 협력과 의료원의 우수 의료기술 전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정혜원 이대목동병원 신부인과 교수 등은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백 원장은 최신 유방암 수술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빈맥 국제병원과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베트남 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베트남 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호기자

전국 14곳서 '고혈압' 건강강좌

협회, 12월 첫 주 '고혈압 주간'으로 선정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건강강좌가 12월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한국고혈압관리협회(회장 배종화)는 12월 첫째 주 '고혈압 주간'을 맞이 대한고혈압학회와 함께 다음 달 5일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서 고혈압 주간 기념행사를 갖고 대국민 고혈압 건강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광주를 비롯해 전국 14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되며 고혈압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고혈압의 잘못된 상식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배종화 한국고혈압관리협회 회장은 "협회는 고혈압으로 인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고혈압 주간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길기자

“신선한 CCM 들려드릴게요”

투애니원 공민지는 내 동생…음악적 멘토
종교 뛰어 넘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CCM
힙합·랩·일렉트로닉까지 신나는 '종교음악'

걸그룹 투애니원 멤버 공민지의 언니 공민영(23)이 CCM가수로 데뷔했다. CCM은 모든 대중음악의 형식에 기독교 정신을 담은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다. 동생과 같은 K팝 장르 가수로 데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민영은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직업이 다르다. 동생은 그 쪽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는 이쪽에 맡겨진 역할이 있다"며 "서로 다른 분야지만 응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첫 앨범 '리버스'는 대중의 귀에도 익숙한 힙합과 랩,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등이 담겨있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보통 CCM이면 가스펠을 예상하는데 공민영의 음악은 신선하다. 댄스와 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CCM 안에도 K팝과 비슷한 느낌의 음악이 많다. 사실 CCM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부담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깨보고 싶었다. 미국에선 CCM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한다. 종교를 떠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다. 특히 CCM 안에는 사랑과 회복 등의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공감하며 들을 수 있게 앨범을 만들어왔다.

◆ 작사·작곡란에 공자매라는 예명을 쓴 이유가 있다.

교회가면 자매님, 형제님 할 때 그 자매다(웃음). 아티스트로서 내 이름은 공민영이지만 작사·작곡엔 공자매라는 닉네임을 썼다. 내 이름보다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 CCM 앨범이지만 만들면서 '선배 가수' 동생의 조언은 없었나.

동생은 내 음악적 멘토다. 동생 역시 CCM을 좋아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눈다. 특히 이번 앨범을 만드는데 동생이 많은 조언을 해줬다. 음악적 센스가 넘친다.

◆ 동생과 느낌이 많이 다르다. 동생은 뛰어난 춤 실력으로 유명한데 공민영은 어떠한가.

목소리만 보면 좀 나쁘나. 동생은 끝은 보이스컬러고 다는 밝은 톤의 허스키다. 춤은 동생과 비교하자면 한참 못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못 추는 아니다(웃음). 어머니가 춤을 잘 추신다.

◆ 오늘 의상도 어머니가 코디해주신 것이라 들었다. 두 사람의 고모(이모)님이 공옥진 여사라서 거기에서 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영향도 상당해 보인다.

맞다. 어머니께서 끼가 많으신 분이었다고 하셨다(웃음). 어머니가 패션 쪽 일을 하셔서 나와 내 동생은 어릴 때 직접 옷을 사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사다주셨는데 언제나 마음에 들었다. 앨범 재킷 촬영할 때도 하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었다. 사람들은 CCM이라 하면 성가대 옷 입고 클래식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틀을 깨고 싶었고 함께 즐기고 싶다.

◆ 원래부터 가수가 꿈이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다. 다른 아이들이 병원놀이, 엄마놀이 할 때 나와 동생은 라디오 놀이, 뮤지컬 놀이를 했다. 라디오 놀이는 한 명이 DJ를 하면 다른 한 명이 게스트가 돼 노래도 듣고 얘기도 하는 그런 놀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함께 했다. 특히 동생은 아주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는 애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수의 길을 걸었고 나는 장녀라서 우선 공부에 매진했다. 그런데 수능 두 달을 앞뒀을 때 도저히 음악을 포기 못하겠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음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받아들여주셨다. 대학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 국내 음악시장에서 CCM 입지가 그리 크지 않아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사실 CCM 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종교음악이라 잘 알려지지 않았다. 매주 목요일에 디사이플스 찬양팀에서 노래와 랩을 한다. 직업 자체가 CCM 가수니까 개인적인 스케줄이 들어오기도 한다. 재작년에 태국에서 길거리 공연을 한 적이 있다. 다음 달에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디사이플스 팀과 함께 공연할 계획이다.

◆ CCM 장르가 아닌 대중가수 중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나.

아델과 리한나를 좋아한다. 어릴 때는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 이번 앨범에 EDM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렉트로닉 사운드는 대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했다. CCM에서는 EDM 장르가 흔하지 않아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번 앨범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이 명이라도 내 노래를 듣고 위로 받는다면 그것만으로 값지다고 생각한다.

사진/리본디테일[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첫 앨범 '리버스' 발표한 **공 민 영**

조윤희

이성재

‘왕의 얼굴’ 정통 사극 ‘정도전’ 이을까?

수목극 후발 주자로 출사표 -관상·광해 등 흥미로운 소재

KBS2 ‘왕의 얼굴’이 오는 19일 지상파 3사 수목드라마 후발 주자로 나선다. 작품은 앞서 시작한 SBS ‘피노키오’(9.8%, 지난 13일 닐슨코리아·전국 기준), MBC ‘미스터백’(13.3%)이 접전인 가운데 전작인 ‘아이언맨’(3.4%)의 후광도 누리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14일에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이성재는 “‘비밀의 문’을 두고 어렵다고 하는데 ‘왕의 얼굴’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다”며 “‘피노키오’ ‘미스터백’을 젊은 시청자가 주로 본다면 우리 작품은 전 연령대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말했다.

이성재는 작품에서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를 연기한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예민한 성격의 왕을 표현할 예정이다.

조윤희는 “신선한 ‘광해와 관상’을 다른 드라마와의 차별점으로 뽑았다. 그는 “사람들이 관심 있은 법한 ‘관상’이 극의 소재고 광해에 서인국이라는 신선한 배우가 캐스팅되면서 그가 어떻게 광해를 표현할 지 궁금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조윤희는 조선시대 신분계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21세기적인 삶을 산 적극적인 여인 김가희 역을 맡았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선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여인이지 광해에게는 첫 사람이다. 그는 선조와 광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삼각로맨스를 형성한다.

권력 암투를 이겨내고 왕이 되는 세자 광해군으로 분한 서인국은 데뷔 후 처음 사극에 도전한다. 그는 “어떤 옷을 입혀놔도 잘 하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왕이 된 광해가 아닌 왕이 되기 까지의 광해 모습을 담는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영상에서는 군주의 관상을 갖지 못한 선조, 왕의 얼굴을 타고난 왕자 광해, 두 왕을 섬기는 여인 김가희, 왕을 꿈꾸는 관상가 도치(신성록), 욕망을 불태우는 귀인 김씨(김규리)의 왕좌를 둘러싼 정치 게임이 그려져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KBS1 ‘정도전’ 이후 팩션 사극에 대한 시청자의 흥미가 떨어져 있어 ‘왕의 얼굴’의 흥행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윤성식 감독은 “시청자가 정통사극이 아닌 팩션임을 인정하고 봐야할 것”이라며 “김가희, 도치 같은 가상 인물이 등장하지만 역사 왜곡은 없다. 역사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조와 이선, 부자(父子)간 비극을 그린 SBS 월화극 ‘비밀의 문’과의 비교에 대해 “구조적으로 비슷한 부분은 있겠지만 ‘백성의 얼굴이 곧 군주의 얼굴’이라는 점이 작품의 주제”라며 “여기에 김가희를 사이에 둔 선조, 광해, 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을 역사적 사건 속에서 풀어낼 예정”이라고 연출 포인트를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공주’ 김자옥 하늘나라로…

63세, 대장암 폐로 전이…‘꽃보다 누나’로 사랑

배우 김자옥(사진)이 16일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과거 대장암으로 투병했으며 얼마 전 폐로 암이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4월 종합 검진을 받던 중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경과가 좋아 바로 다음달 SBS 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하며 평소와 다름 없이 활동했다.

이후 ‘그들이 사는 세상’ ‘지붕 뚫고 하이킥’ ‘엄마도 예쁘다’ ‘오작교 형제들’ ‘맛있는 인생’에 이어 올해 3월 종영된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까지 출연했다. 최근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로 크로아티아 여행을 하며 시청자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전 암이 폐로 전이된 게 밝혀져 최근까지 병원에서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연락을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자옥은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 출신이다. 작고 아담한 미인으로 데뷔와 동시에 영화 ‘보통여자’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목마 위의 여자’, 드라마 ‘모래 위의 욕망’ ‘사랑과 진실’ ‘유혹’ ‘은빛 여울’ 등에 출연해 1970~80년대를 풍미했다.

‘공주’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1996년 ‘공주는 외로워’를 발매하고 가수로도 활동했다.

19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를 이유로 3년 만에 이혼했다. 1년 후 가수 오승근과 재혼해 지금까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살아 왔다.

유족으로는 오승근과 1남1녀가 있으며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막내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치러진다. /전효진기자

‘무한도전’ 또다시 사과

노홍철 음주운전 하차에 “마음 단단히 잡을 것”

‘무한도전’ 멤버들이 노홍철의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멤버들은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하차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사드리게 돼 면목이 없다. 올해 4월 똑같은 일로 멤버 길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로 사과드리게 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홍철도 이번 일로 깊이,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재석과 멤버들은 “매주 큰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홍철은 지난 11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 적발 당시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노홍철은 1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어떠한 질책과 처벌에 대해 변명이나 부인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노홍철은 현재 ‘무한도전’과 ‘나는 혼자다’ 등 출연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자진 하차한 상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전장에 뛰어든 소녀의 비장한 결단

주제의 깊이 더한 시리즈 마지막 편의 1부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헝거게임: 모킹제이

'헝거게임'은 10대들의 생존 게임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래의 독재국가 판엠을 무대로 한 SF 판타지 시리즈다.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10대 여자 주인공, 그리고 판타지 장르라는 점에서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아류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생존 게임 또한 '배틀로얄'이 먼저 다룬 익숙한 설정이었다.

그러나 '헝거게임' 시리즈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함으로써 지금의 인기 시리즈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주인공들의 로맨스 대신 리얼리티 쇼를 둘러싼 미디어의 행태, 그리고 독재국가 내부의 계급 갈등 등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했다. 여기에 주인공 캣니스를 연기하는 제니퍼 로렌스의 할리우드 내 위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한 것 또한 시리즈의 인기 요인이 됐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2012)과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2013)에 이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편 중 1부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전작에서 연인 피타(조쉬 허처슨)를 남겨두고 반란군에 합류하게 된 주인공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피타를 구하기 위해 혁명의 상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의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메가폰을 다시 잡았다.

결말을 향해 가는 작품인 만큼 영화는 전작들보다 한결 무겁고 비장하다. 서바이벌 게임이자 리얼리티 쇼였던 '헝거게임' 안에서 권력에 맞서 싸웠던 캣니스는 이제 게임이 아닌 전쟁에 뛰어들어 싸움에 나선다. 주제 면에서도 한층 깊이를 더하고 있다.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TV 리얼리티 쇼를 이용했던 캐피톨과 그런 캐피톨의 권력을 빼앗아 올 전쟁을 위해 프로파간다 영상을 사용하는 반란군의 대비되는 모습에서는 정치권력 전반에 대한 영화의 비판적인 태도가 잘 드러난다.

영화 속에는 "타협 없는 진보는 없고 희생 없는 승리는 없다"는 대사가 나온다. 그러나 이 비장한 결단과 달리 캣니스의 고민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자신의 가족이 무사할 것, 그리고 사랑하는 피타를 다시 되찾아 오는 것이다. 대의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캣니스의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다. 제니퍼 로렌스의 열연도 힘을 더한다. 다만 1년 뒤 개봉할 다음 편을 여고하는 결말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남긴다. 15세 이상 관람가. 11월20일 개봉.

극장가 장악한 '인터스텔라'

개봉 10일 만에 400만 돌파

영화 '인터스텔라'가 11월 극장가를 완전히 장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인터스텔라'는 개봉 2주차 주말인 15일 하루 동안 전국 1401개 스크린에서 75만78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0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415만1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스텔라'는 개봉 2주차에도 관객 수가 오히려 증가하며 흥행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개봉 1주차 토요일이었던 지난 8일에는 68만2399명을 모았으나 15일에는 이보다 많은 75만여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16일 오전 기준 86.6%의 높은 예매율도 영화의 인기를 증명한다.

특히 '인터스텔라'는 올해 초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보다도 이틀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흥행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터스텔라'는 식량난으로 지구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이들의 모험을 그린 영화다. '메멘토'와 '다크 나이트' 시리즈, '인셉션' 등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으로 매튜 맥커너히, 앤 해서웨이 등이 출연했다.

한편 지난 13일 개봉한 '카트'는 15일 하루 동안 12만5493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4만647명의 관객을 모은 '패션왕'이 그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패션왕'의 누적 관객수는 30만4030명이다. /장병호기자

유선 '히말라야' 합류

황정민과 부부로 호흡

배우 유선이 영화 '히말라야'에 합류한다.

지난 14일 유선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유선이 이석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히말라야'에 엄홍길 대장의 아내 역으로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엄홍길 대장 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과 호흡을 맞춘다.

유선은 이날 영화 '히말라야' 고사 현장을 찾아 영화 촬영을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했다. 제작진과 함께 출연할 배우들과 인사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히말라야'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인만큼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유선의 맛도 있는 연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히말라야'는 지난 2005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생을 마감한 후배 대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해발 8750m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향해 목숨을 건 원정을 떠났던 엄홍길 대장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황정민, 정우가 앞서 캐스팅됐다.

한편 유선은 최근 SBS 2부작 드라마 '이놈'에서 엔딩 역을 맡아 촬영을 마쳤다. 한 남자의 죽음에 얽힌 억울함을 한 노무사가 풀어간다는 내용의 드라마다. /장병호기자

B1A4 바로 난쟁이 변신

그룹 B1A4 멤버 바로가 '일곱난쟁이'로 생애 첫 애니메이션 더빙에 도전한다.

'일곱난쟁이'는 결정적인 실수로 왕국과 동화 속 주인공들을 위기에 빠뜨린 일곱 난쟁이들이 동화 구출 원정대가 돼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내용의 코믹 어드벤처 영화다. 바로는 주인공이자 막내 난쟁이 보보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극중 보보는 어린 알이라도 호기심이 가득한 인물이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나머지 여섯 난쟁이들과 함께 용기 있게 모험을 나서는 캐릭터로 위기에 빠진 동화 속 주인공들을 구하기 위해 긴 여정에 나선다.

바로는 생애 첫 더빙인 만큼 열정과 긴장을 가지고 더빙에 임했다. 그는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하지만 자꾸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다. 나에게도 보보랑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내 목소리와 캐릭터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일곱난쟁이'는 다음달 24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날씨

11/17 月 해뜸 07:13 해짐 17: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뇌졸중은 환절기와 초겨울에 자주 발생합니다. 평소 운동도 좋으나 추운 날씨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킬 수 있어 가급적 아침에는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능지수 / 관절 계통증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1	9
	9		8					
		6		5		7		3
6	1		4					
	2			1			6	
					3		9	8
4		2		9		6		
					5		8	
7	8		3					

스도쿠 정답

2		5	9					
7			5					9
	3	9	2			7		
		2		1				3
	5						8	
8				4		5		
		6			2	9	4	
1					6			5
					7	8		1

문제제공: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보졸레누보 & 탄산침용(Carbonic Maceration)

조민준의 와인스토리

와인 양조 과정의 핵심인 발효에서는 두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포도알에 포함된 당분이 효모의 작용으로 알코올로 바뀌는 발효(Fermentation)와 포도 껍질에 포함된 색소와 탄닌을 우려내는 침용(Maceration)이다. 대부분의 와인은 포도를 수확한 후 으깨어지고 줄기가 제거된 후 거대한 오크나 스테인리스, 또는 콘크리트 통에서 발효된다. 발효가 끝나면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숙성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보졸레누보는 그만의 독특한 발효 시스템을 갖고 있다. 탄산 침용법(Carbonic Maceration)이 그것이다. 보졸레누보 원료 품종인 가메(Gamay)의 특징에 맞춰진 방식이다.

탄산 침용법은 수확한 포도를 송이째 밀폐된 탱크에 넣고 4일 내외에 발효와 침용을 동시에 일으킨다. 와이너리에 따라 탱크에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채우기도 하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송이 포도는 포도 자체의 무게와 가스로 인한 압력으로 밑에서부터 으깨어지고 포도즙이 흘러 나온다. 예정된 날짜가 되면 탱크 속에 남은 포도를 프레스로 압착해 원액을 뽑아내고 이들을 모두 섞는다. 전통적인 발효법과 탄산 침용법을 혼용한 세미 탄산 침용법을 쓰기도 한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껍질의 색소는 그리 많이 추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졸레누보는 분홍빛을 띤 적자색을 보인다.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다. 탄닌도 적어 맑은 맛이 약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액을 오크통에 넣고 5주 동안의 숙성을 거친다. 통에 잠깐 머무르기 때문에 부케(오크향 등 숙성 기간에 스며드는 향기)는 거의 없다. 대신 포도 자체가 가진 향, 즉 아로마가 강하다. 블루베리나 복숭아 등 과일향과 꽃향기가 풍부하다.

이번주 목요일이면 2014년 빈티지의 보졸레누보가 시판된다. 와인 열기가 대단했던 수년 전에는 병당 최하 3만원을 호가했으나 가격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많이 착해져서 1만원 내외의 가격대도 많다. 유명 와이너리 제품이 아니라면 품질 차이가 크지 않으니 두세병 사 들고 보리차 마시듯 음미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대학생 아들 장사결심, 해도 될까요
2년 후 부동산이나 음식업 관심을

해동신산 남자 1992년 8월 21일 음력

Q 메트로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이 되어 김상회선생의 '사주속으로'보기가 참 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막내아들(1992년 8월 21일 음력 새벽)에 대하여 고민한가지를 여쭤 봅습니다. 대학교 3학년 화공과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에게 안 맞는 전공 같다면서 장사를 하겠다는데 어떤 장사를 할는지도 명확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장사밑천을 대줄 저의 집안 형편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을 하면 될 수 있기나 한지요. 한다면 어느 방향 무슨 직종으로 나가야 되는지요?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A 옛 어른들은 "아이교육을 자식농사"라고 했지요. 농사를 때에 맞추어 반드시 해고 넘어갈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생략하거나 대충해버리면 여지없이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자식농사도 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공과목이 안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거나 대학교를 정하고 나서 전공과목을 정하므로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은 인생의 행복을 기약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운에서 식신(食神: 생각의 변화나 새로운 꿈을 꾀하는 것)이 들어와 있으며 귀운살(집상적이지 않은 궤도를 달리려는 마음과 정신)이 동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운에서 상관(불만 표출이나 관을 침)이 되어 멋을 부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재격(正財格: 올바른 재물을 추구함)시 주로서 재물을 취할 때 정식으로 올바르게 벌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운이 25세 이후부터 재성운의 발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많이에 하며 지금처럼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피해야 해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말고 2016년 이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휴식재령을 할 수 없으니 일단은 군대에 가서 의무를 다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 됩니다. 면위 군대가 아니라면 사회봉사 경험을 쌓는 것이 운기 상 도움이 됩니다.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이나 먹는 장사를 택해야 하며 창업하는 가게의 장소는 사주 중에서 천을귀인(남의 도움을 받는 길함)과 천월덕(天月德)방향인 북쪽으로 정해야 좋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언제 '사주 속으로' 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할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쥐: 48년생 복잡할수록 깊은은 검도다. 60년생 명예보단 실리 선택할 것. 72년생 귀인을 만나서 야망을 키운다. 84년생 부모의 후광이 되레 짐이 되는구나

소: 49년생 공돈이 생기나 기대하라. 61년생 성과로 존재감 과시한다. 73년생 경쟁자의 계대로 한번 눌러라. 85년생 사랑에 동시다발 경고음이 울린다

호랑이: 50년생 서두르면 파국을 맞는다. 62년생 기회 왔을 때 새 롤 도전해 보라. 74년생 사라진 길을 다시 찾은 격이다. 86년생 자신에 보다 솔직해도록 노력하라

토끼: 51년생 관고회은 백해무익담을 명심~ 63년생 변화보단 현상유지가 좋다. 75년생 자영업자는 뜻밖의 행운 기대하라. 87년생 나를 알게을 영웅을 만난다

용: 52년생 자녀 신상에 좋은 변화 있다. 64년생 남 허물 꾸짖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 76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 있다. 88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아효~

뱀: 53년생 이웃 때문에 당혹할 일 생김~ 65년생 변화는 결단이 답이다. 77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원칙은 지키라. 89년생 삶에 활력소가 될 일이 생긴다

말: 42년생 곧은 뇌관은 터진다. 54년생 작은 허물은 그냥 내버려 두라. 66년생 친구를 부러워 할 일이 생긴다. 78년생 변화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양: 43년생 자만함은 독단적 지리 말라. 55년생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다. 67년생 사람 가려서 사귀지 말라. 79년생 주변에 돈이 막 몰린다

원숭이: 44년생 약점 보이면 배우자에 압도당한다. 56년생 아랫사람 원칙조정 말라. 68년생 자기 자산을 알면 살기는 쉽다. 80년생 운전은 가능한 하지 말라

닭: 45년생 자존심 걸고 흥정 말라. 57년생 매우 편안하게 하면 실수 없다. 69년생 중요한 정보 보안에 신경 써라. 81년생 결국 그대 뜻대로 굴은 풀린다

개: 46년생 오라는 곳이 많이 바쁘다. 58년생 미련 버리고 희망의 탈출구를 찾아라. 70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2년생 넘어져도 일어서면 그만~

돼지: 47년생 유식으로 인한 말 조심. 59년생 남몰래 베푼 선행이 칭송이 쏟아진다. 71년생 예측은 빗나가니 대비하라. 83년생 가혹한 세월은 끝이 보인다

프로야구 FA '100억 선수' 나올까?

21명 명단 공개…최정·윤성환·안지만·장원준 '주목'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시작됐다. 기존 FA 몸값 기록을 뛰어넘는 초대형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FA 자격을 얻은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18일까지 KBO에 FA 신청을 해야 하며 20일부터 원 소속구단과 협상을 벌인다.

SK 와이번스가 6명(최정·박진만·나주환·김강민·조동화·이재영)으로 가장 많은 FA를 배출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5명(윤성환·권혁·안지만·조동찬·배영수), 롯데 자이언츠가 3명(장원준·김사율·박기혁)으로 그 뒤를 이었다.

KIA 타이거즈(송은범·차일목)와 LG 트윈스(박용택·박경수)에서 2명, 넥센 히어로즈(이성열), 두산 베어스(이원석), 한화 이글스(김경언)에서 각각 1명씩의 FA 선수가 나왔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SK 와이번스 3루수 최정(27·사진)과 삼성 라이온즈 오른손 선발 윤성환(33)이 각각 야수와 투수 최대 기대주로 손꼽힌다.

최정은 올 시즌 부상이 겹쳐 82경기만 출전했으나 타율 0.305·14홈런·76타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타율 3할·20홈런 이상을 꾸준히 기록해 20대 내야수라는 프리미엄도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최정이 몸값 100억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성환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 투수 중 한 명이다. 2011년부터 올 시즌까지 4년 동안 총 48승(26패)으로 더스틴 니퍼트(52승)와 장원삼(49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승수를 쌓았다. 2014 한국시리즈에서 2승을 거두며 빅게임 피처로 자리매김한 만큼 장원삼의 6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에 사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최고의 불펜 투수 안지만(31·삼성)과 왼손 선발 장원준(29·롯데)의 행보도 주목 받고 있다. 둘은 일본 프로야구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안지만이 한국에 남는다면 2011년 정대현(롯데)이 기록한 불펜 투수 최고액(4년 36억원) 경신은 물론 윤성환과 'FA 투수 최고액'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다. 장원준도 '젊은 왼손 투수'라는 이점을 안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

이밖에도 공수를 겸비한 외야수 김강민(SK), 한때 국내 최고 오른손 투수라는 평가를 받은 투수 송은범(KIA 타이거즈)도 FA 시장을 달굴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슈틸리케호 이란 입성 18일 경기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일 오전 1시30분께(이하 한국시간)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통해 이란에 입국했다.

한국은 오는 18일 오후 9시55분 이란과 중동 원정 2연전의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장소는 '원정팀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아자디 스타디움이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7무11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자디 스타디움에서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5경기에서 2무3패에 그쳤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해발 약 1200m의 고지대에 있어 원정팀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경기장으로 손꼽힌다.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여성은 출입할 수 없다. 남자 10만명이 내지르는 거대한 함성으로 혼을 쏙 빼놓는다. 이란은 아자디 스타디움의 분위기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이 열세인 조건은 또 있다. 이란은 2011년부터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의 지휘 아래 조직력을 단단히 다져왔다. 반면 한국은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번에 소집된 태극전사 가운데 이란 A대표팀을 상대로 골맛을 본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다만 구자철(마인츠)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3~4위전에서 이란을 상대로 득점한 기억이 있다.

구자철은 입국 뒤 취재진과 만나 "이란을 만나 져본 적이 없는데 원정 경기는 처음이다. 이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이어가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슈틸리케호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사상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

고지대·10만 관중 응원 등 극복이 관건

16일 오전(한국시간) 이란과의 원정 평가전을 위해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백규정 KLPGA 신인왕 등극

KLPGA 마지막 투어 … 전인지는 세 번째 우승

백규정(19·CJ오쇼핑·사진)이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이 됐다.

16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파 72·6276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백규정은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대회 합계 3언더파 216타로 공동 23위로 대회를 마쳤다. 신인왕을 놓고 경쟁을 펼쳤던 고진영(19·넵스)과 김민선(19·CJ오쇼핑)은 합계 3오버파 219타로 공동 39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백규정은 신인왕 포인트 67점을 더해 2311점을 차지했다. 각각 51점을 따낸 고진영(2221점), 김민선(2218점)의 추격을 제치고 올해의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전인지(20·하이트진로)가 차지했다. 전인지는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5개를 쓸어담고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허윤경(24·SBI 저축은행)에 3타 뒤진 공동 2위에서 출발한 전인지는 이날 경기에서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써내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4000만원이다.

김효주(19·롯데)는 4언더파 212타로 공동 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올 시즌 5승을 거둔데 힘입어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 다승왕 등 4개 부문 타이틀을 획득했다.

/장병호기자

쇼트트랙 기대주 최민정 개인전 첫 金

월드컵 1500m 우승…심석희는 동메달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새 기대주 최민정(서현고)이 국제무대에서 첫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16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4~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최민정은 2분38초970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2분39초058)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처음 시니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최민정은 지난 1차 대회에서 계주 금메달 획득으로 월드컵 무대 적응을 마쳤다. 이어 이번 대회 1500m에서 첫 번째 개인전 금메달을 거머쥐고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한편 대표팀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심석희(세화여고)는 2분39초089의 기록으로 이 종목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병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16일

서울	2	2	울산

득점 = 고명진④ 전9분, 몰리나⑥ 전11분 (이상 서울) [illegible] (이상 울산)

전남	1	1	경남

득점 = [illegible]

제주	0	1	수원

득점 = [illegible]

프로배구 전적 16일

현대캐피탈	0	3	삼성화재
IBK기업은행	3	0	KGC인삼공사

프로농구 전적 16일

팀	1Q	2Q	3Q	4Q	합계
전자랜드	14	19	23	10	66
KT	16	16	16	26	75
LG	15	17	19	13	64
SK	21	18	16	22	78
전자랜드	23	23	23	17	89
삼성	16	15	10	25	65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